

地人の 반대가 대단하다.

同國의 議會論議를 보면 처분계획 속에 中레벨을 포함하고 있고 淺地層處分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다. 최근, 의회의 시찰단이 각국을 둘러봤는데 스웨덴의 海底下岩盤으로의 처분계획(후울스말크 附近)이나 서독당국의 公衆에 대한 對應 태도에 강한 인상을 받은 것 같다.

高레벨폐기물의 처분도 보류되고 있다. Sizewell B(加壓水型 1號) 건설결정이 과연 同國原子力計劃의 돌파구가 될 지 어떨지...

어쨌든, 歐州 各國의 처분계획은 위의 3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진전하고 있으며 이것과

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발자취가 눈에 띈다.

미국의 高레벨처분계획은 작년 6월 중간선거와 엉켜서 에너지省(DOE)이 일방적으로 核廢棄物政策法(1982년)의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혼란을 가져 왔으며 현시점의 DOE 제안은 제 1 저장소의 개설을 5년 연장(→2003년), MRS(모니터附 回收가능저장)의 2년연장(→1998년), 제 2 저장소의 지점선정의 무기연기의 3가지이다.

議會는 DOE의 계획변경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거부하여 舊計劃으로, 또는 오히려 계획을 재건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 영국

### Sizewell B 建設을 向해서 前進

反對派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3月 英國政府는 英國中央電力廳(CEGB)이 제의한 15.5억파운드(24억달러) 상당으로 英國의 東海岸 Suffolk에 Sizewell B(1,175MW, PWR) 建設에 대해서 推進토록 명령하였다. 英國 最初의 商業用 PWR 建設에 대한 이 결정은 英國의 總發電量에서 占하는 原子力發電의 比率을 現在의 20% 수준에서 1/3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今世紀中에 같은 型의 PWR을 5~6基 建設한다는 計劃의 포석으로 보인다.

WH社가 設計와 NSSS技術에 대해서 Brittain' National Nuclear Corp. 에게 라이선스를 줄 것인데, 이 프로젝트에서 美國業體의 參與分은 2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設計支援은 WH社의 벨기에子會社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CEGB는 이미 設計, 소프트웨어, 長期間의 리드타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合計 1억2,200만파운드(1억9,30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번의 政府措置는 英國의 GEC에 약 9

천만파운드(1억4,200만달러)의 터빈을 포함하여 추가로 3억2,500만파운드(5억1,300만달러)의 제작가 계약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밖에 主要土木工事を 포함한 95개의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데, Sizewell B 전체 건설비의 90% 이상은 英國會社가 맡게 될 것이고 오직 3%만이 직접 海外의 企業에 할당될 것이라고 CEGB 側은 말하고 있다.

금년 말 CEGB는 500MW Magnox 爐와 1,252 MW AGR이 이미 稼動되고 있는 Hinkley Point 에 PWR 후속기 건설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PWR 후보부지는 Winfrith, Dungeness, Druridge, Wylfa, Trawsfynydd 등인데 Druridge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原子力發電所가 立地하고 있다. CEGB는 지난 3月 12日의 기자회견에서 Hinkley Point C의 건설계획신청이 英國의 公청회 역사상 가장 길었던 2년이상 끈 Sizewell의 공청회와 같은 전철을 밟지않고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izewell PWR은 Callaway와 Wolf Creek에

있는 WH社 設計의 PWR을 기본으로 하나 英國의 안전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Sizewell B에 대한 부지정지작업은 CEGB가 4月末로 예상하고 있는 부지허가가 Nuclear Installation Inspectorate (NII)로 부터 나오면 수주일후 곧 착수할 것인데 1994年 運轉開始를 목표로 하고 있다.

### 英政府, PWR建設을 決定 Sizewell B發電所 곧바로 作業開始로

영국정부는 3월 12일 中央電力廳(CEGB)이 계획하고 있는 同國最初の 輕水爐(Sizewell B 발전소=PWR, 110萬kW)의 건설을 認可한다고 발표했다. 또 CEGB는 바로 현지작업에 착수하고 금년말까지는 추가로 Hinkley Point의 P-

WR 건설계획을 실천할 예정임을 밝혔다.

Sizewell B발전소 도입을 둘러싼 公廳會는 1983년 1월에 시작하여 약 3년간에 걸쳐 1985년 3월에 끝마쳤다. 또 이 공청회의 검토도 당초의 예정을 1년이나 초과, 작년 12월에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 밝혀졌고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리스크, 발전소 소재지 환경상의 손해라는 2개의 문제점이 생각되기는 하나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 이것을 상廻하고도 남는다」라 하여 이 발전소의 건설을 권고했다.

또 PWR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장 저렴한 電源」이라고 확정하고 전력공급의 다양화라는 점에서도 앞으로 원자력발전의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서 독

### KWU社, BOT原電契約方法에 懷疑的

西獨의 Kraftwerk Union AG (KWU)는 인도네시아의 原電建設프로젝트에 대한 投資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인도네시아政府가 위험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에 原電을 建設하는 計劃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政府가 제의한 build-operate-transfer (BOT) 베이스로 600MW PWR의 建設에 대해서 프랑스의 Framatome社와 함께 투자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KWU는 이 조사가 3個月內에 완료될 것이라고 하였다.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BOT計劃에 따르면, KWU와 Framatome社는 그들이 建設한 發電所에서 生産되는 電氣를 인도네시아의 電力系統에 판매하여 建設費를 회수하여야 한다.

현재 KWU는 터키電力廳(TEK)으로 부터의

Akkuyu Bay 原子爐에 대한 또 다른 BOT 제의를 거절하였는데 이것은 터키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完工되리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KWU側은 밝혔다. 西獨의 製作業體는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을 포함한 백업보증계획을 구상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으로 契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이 책임을 맡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또 다른 製作業體인 캐나다原子力公社(AECL)도 KWU의 거절에 이어서 이 BOT 입찰방법을 거부하였다.

### 蘇聯, 100MWe高温가스爐에 關心

西獨政府의 대변인 Friedholm Ost氏는 기자회견에서 西獨과 蘇聯은 1986년 중반부터 BBC/HRB HTR - 100unit 2基의 Cogeneration 플